21~30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국화향으로 만나는 동행'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 3년만에 대면으로 치러져
무료 운영 특별전시장서 생명나무 빛조형물 선봬
신흥근린공원·미륵사지 등서 각기 다른 테마로 전시

익산시가 3년만에 대면축제로 펼쳐지는 천만송이 국화꽃 향연에 도시 곳곳이 물들어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올해로 17회를 맞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깊어가는 가을 국화꽃의 진한 향기를 도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미륵사지 등 주요 관광지 7개소에서 11월 13일까지 분산전시를 병행한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3년만에 열리는 대면행사로 '2022 ~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외부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특별전시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침체 여파를 고려해 판매장의 부스 사용료도 면제하여 부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올해 국화축제는 '국화향으로 만나는 자연과의 동행'이다. 메인 장소인 중앙체육공원에 특별전시장을 중심으로 웰컴포토존, 국화향기정원, 친환경 테마존으로 연출한다.

특별전시장에는 생명나무 빛조형물과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정크아트존을 마련한다.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코스가 될 것이다. 그동안 유료였던 특별전시장은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무료로 운영한다.

하트게이트, 백제왕도문, 보석 빛조형물, 생명나무 빛조형물 등 대형 조형물을 전시해 웅장하고 화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예정이다. 유라시아 희망열차, 담장, 트리 등 중소형 조형물과 국화포토존, 토피어리와 형형색색 국화를 조화롭게 펼쳐진다.

실내전시관에는 다륜대작, 현애 등 전국 최고 품격의 국화작품과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30여종의 국화 신품종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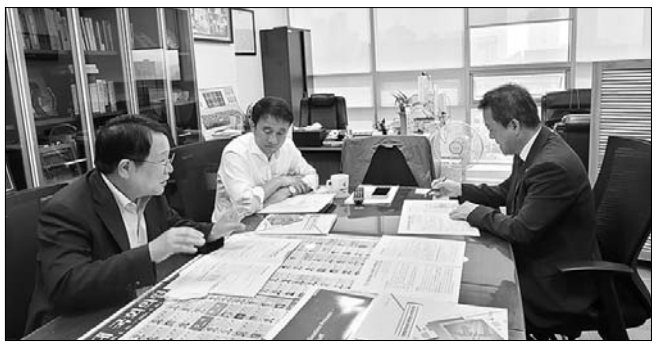
또한, 익산 곳곳에 국화향을 만끽할 수 있게 신흥근린공원, 미륵사지 등 도심과 주요 관광지 7개소에서 각기 다른 테마로 전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분산전시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도 11월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흥근린공원 내 정원 3곳에는 국화, 핑크뮬리 등 초화류가 돋보일 수 있도록 중소형 조형물, 오브제, 토피어리 등을 활용해 확트인 수변경관과 자연지형 속에서 힐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미륵사지는 왕궁게이트를 시작으로 서동설화 속의 쌍용, 유리제사리병, 삼족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제왕도정원이 펼쳐진다. 용안생태습지는 드넓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해 국화를 식재하고 다양한 포토존을 전시해 노을빛정원을 연출한다.

유천생태습지는 중소형 조형물, 포토존, 토피어리 등을 활용하고 유천도서관과 연계해 어린이 동반 가족 관람객을 위한 어린이 동화나라정원으로 꾸민다.

익산역에서는 '2022~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익산 대표관광지를 홍보하는 익산 여행길정원을 꾸며 포토존과 유라시아 철도 국화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의원 등과 만나 주요 환경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환경 현안 해결 '총력전'

정헌율 익산시장, 민주 한병도 의원 등 찾아 현안 논의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의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과 만나 주요 환경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왕궁현업축사 매입지 활용방안 △환경부 역점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익산시 준비사항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등 현재 시급한 환경 분야 현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정 시장은 내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인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지에 환경부의 녹색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환경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각종 사업 추진 시 익산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건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농업회의소, 민관 농업정책 간담회

익산시가 농업인대표기구와 만나 쌀값 폭락 등 익산 농업정책에 대한 민관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북부청사 다목적 강당에서 김선태 익산농업회의소회장 및 임원들과 미래농정국,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의 현장 의견과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민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쌀가격 하락·농기경영비 상승 부담에 따른 시비직불금 인상 등 농업 현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농촌지역 거점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농정사업 홍보체계 개선 △농기계 임대사업소내 농업용굴삭기 임대 건의 △이상고온 대비 시설환경 개선 지원 △농촌 유학마을 조성 등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참석자들과 소관 부서장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농업인, 농민단체, 농협 등이 참여한 농업인 대표기구인 익산시농업회의소에서 올해 초부터 읍면동 순회, 농업인제안서, 분과별 회의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단체 대표회의,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코로나19 등 농가경영비 상승 장기화에 쌀값의 유례없는 폭락으로 농민들의 이중삼중의 고충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회의소와 함께 고민하여 대책방안을 만들어갈 것"이며 "적극적 검토를 통해 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제60회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1부 기념식은 내·외빈 초청인사와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식전행사인 시립예술단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기념사, 축사, 기념영상, 시민의 장과 모범시민상 시상, 군산시민헌장 낭독,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후행사로 동남풍의 풍물악기공연, 한국예총 군산지회의 창작무용·청소년댄스팀의 공연으로 마무리됐다.

2부 나도 가수다-씽씽가요제는 읍면동별 각 1팀씩, 27팀이 참가해 시민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경연무대와 초청가수 공연, 다양한 경품행사로 진행됐다. 모든 시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인기상 1팀, 참가상 20팀에게 시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27개의 프리마켓 부스 운영자들도 행사 종료 후 판매수익금의 10%를 시에 기부해 그 의미를 더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포스코건설 '더샵 군산프리미엘' 견본주택 개관

최신 딥러닝 기술 활용 '스마트홈 시큐리티'로 입주민 안전 강화

안면인식 세대 출입 가능 도어폰·지문인식 스마트 도어락 적용
교통·생활인프라도 풍부… 11일 특별공급 시작 12일부터 청약
군산 미장동 501-4번지 일원에 위치…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30일 군산에서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이달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0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 및 전북지역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주택 수와 상관 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28가구 △84㎡B 170가구 △84㎡C 96가구 △109㎡ 210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대형타입으로 구성된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더샵'만의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인다. 특히 단지는 입주민의 안전과 세대 보안강화,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더샵의 특화상품인 '스마트홈 시큐리티(Smart Home & Security)'를 군산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홈 시큐리티는 최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안면인식으로 세대 출입이 가능한 도어폰과 지문인식 스마트 도어락을 적용했으며, 1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의 스마트 월패드, IoT가 연동되는 스마트 욕실 스위치 등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세대 내 보안은 물론,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 편의성 역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 외관에는 군산 최초로 포스코의 프리미엄 강건재를 이용한 측벽패널 'PosMAC 스틸아트월'과 'LED 경관조명'이 적용되는 차별화된 외관을 구성해 단지의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은 조경과 커뮤니티도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먼저 조경은 더샵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아이들과 부모들의 즐거움이 더욱 커진 생활 물놀이 공간인 '유아물놀이장을 비롯해, 더샵의 특화 정원인 'THE 가든',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팜가든', '미러폰드&티하우스',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키즈하우스(어린이집), 맘스카페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더샵 군산프리미엘' 투시도.

세대 내부에서는, 공용욕실 앞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케어룸'이 전 가구에 적용돼 부부욕실 앞 파우더룸에 가지 않더라도 앉아서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는 등 가족 간에도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자의 니즈에 따라 홈트레이닝, 야외캠핑 등 다양한 외부 활용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확장해 실내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한 바이오필릭 테라스(유상·일부타입) 선택이 가능해 홈트레이닝 등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과 함께 포스코건설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포스코건설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 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하여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

또한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계획했고 '3선 보안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이 조성되는 군산시 구암동 일대는 최근 경암동 일대와 함께 구암지구로 불리며 대형 건설사들의 진출로 주거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 이번 '더샵 군산프리미엘' 분양을 시작으로 향후 2,6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고 구암지구 바로 밑에 자리한 기존의 조촌동 디오션시티 8,300여 세대와 함께 1만1,000여세대의 新주거타운을 형성하게 될 예정이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다.

교통환경도 좋다. 반경 300m 이내 버스정류장 7개소가 자리해 군산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시외버스터미널, 군산역(장항선), 군산 IC가 인접해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여기에 인근에는 천안부터 장항~군산~익산 대야를 있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2026년 예정)도 추진되고 있어 더 빨라질 고속철도망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전망이다.

또 주변으로는 이마트, 롯데몰 등의 대형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디오션시티에 형성된 형성된 롯데몰 군산점, 금강도서관 등 다양한 인프라시설도 공유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으로는 동군산병원이 위치해 있고, 500병상 규모의 전북대병원(2027년 7월 예정)도 공사 중에 있어 주거편의성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조촌·구암 일대의 신 주거타운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군산 내 대규모 더샵 브랜드 타운 형성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며 "입주민의 실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인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만큼, 앞으로의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더샵 군산프리미엘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01-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작목별 소득조사 결과
군산 멜론, 농가 소득 높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올해 지역 대표 농산물 5개 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 결과, 옥산면 지역특화품목으로 재배되는 멜론이 10a당 7,598,633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쌀보리, 겉보리, 봄감자, 시설상추, 시설멜론 5개 작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 농가수취가격 등 총수입과 농자재비, 감가상각비, 고용노동비 등 경영비를 조사했다. 농가 소득액을 집계해 비교분석한 결과 쌀보리, 봄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상추와 시설멜론이 소득률이 높았으며 많게는 25배 이상 농가 소득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멜론 농가의 소득이 높게 나온 이유는 생산된 멜론 전량을 직거래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 총수입 금액이 높았으며,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은 적육멜론 우수품종 선택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멜론 품질향상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해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국 1호 '익산청년시청' 저출산대응 우수 선정

익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022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별 저출산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한민국 제1호 익산청년시청, 저출산의 해법을 청년자원에서 찾다!'는 주제로 저출산의 해법을 '출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도시 익산의 '청년자원'에서 찾았다.

'취업-혼인-출산-취학'의 연계성을 높여 익산시 소재의 대학에 진학하며 유입된 청년들이 익산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청년 유입 효과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서 방치된 자전거 저탄소 교통수단 재탄생

익산시가 방치된 자전거를 저탄소 녹색교통수단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및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폐자전거 100대를 수리해 익산행복 나눔마켓·뱅크에 기증했다.

기증된 재생자전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인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폐자전를 수거해 목천동 자전거센터에서 수리된 것이다. 시는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 도시미관 개선, 자원재활용 등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재탄생된 자전거는 만경강 및 웅포 곰개나루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 활용한다. 또한 저소득층 등에 기증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탄소저감 자전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